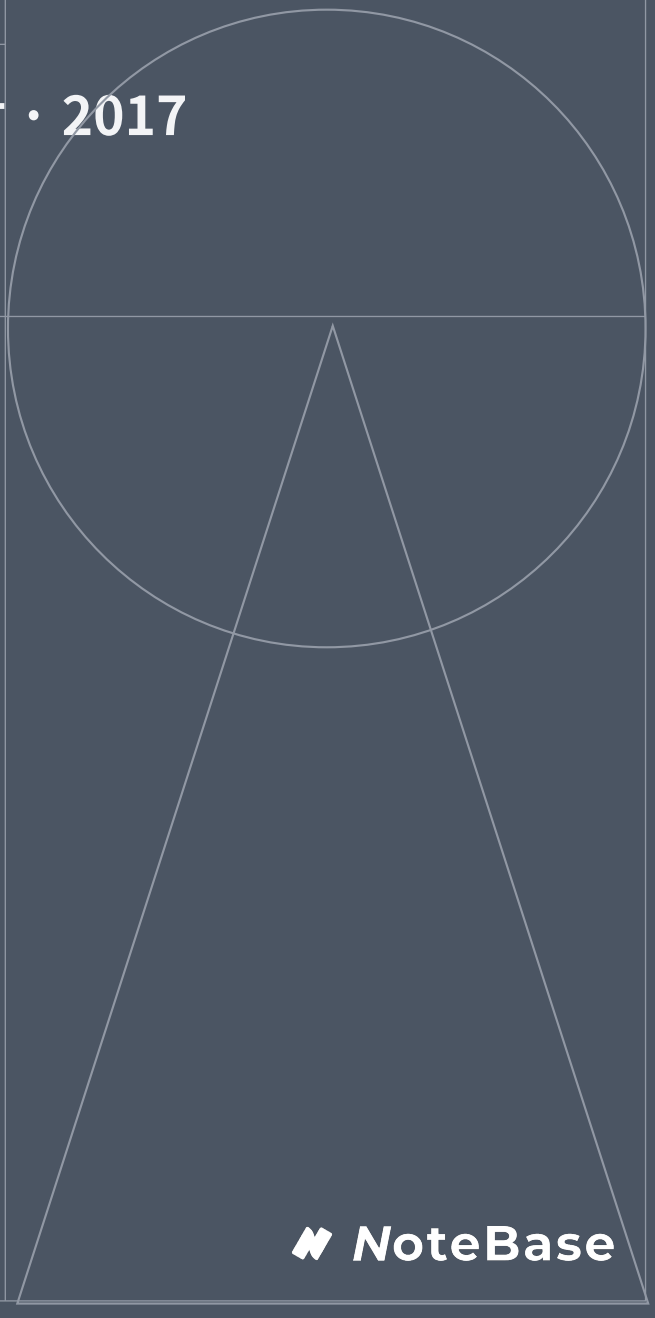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7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7

문 1.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

② 투자부동산 평가방법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

③ 재고자산 측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

④ 영업권에 대해 정액법 상각에서 손상모형으로 변경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 항목을 인식·측정하는 기준(원가모형/공정가치모형, 원가흐름의 가정, 상각 여부 등 측정 방법 자체)이 달라지는 것이고,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같은 측정 기준 안에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소비 형태)에 대한 추정을 바꾸는 것이다.

핵심 개념

감가상각·상각 방법(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에 대한 추정을 바꾸는 것이므로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 반면 자산을 평가·측정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경우(원가모형 ↔ 공정가치모형, 재고자산 원가흐름의 가정 변경, 상각 대상에서 비상각·손상평가 대상으로의 전환 등)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꾸는 것은 원가모형이라는 동일한 측정 기준 안에서 자산의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에 대한 추정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다.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므로 옳은 선지(정답)이다.
② 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바꾸는 것은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③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방법(원가흐름의 가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바꾸는 것은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것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④ 영업권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다가 상각을 하지 않고 손상모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자산을 인식·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감가상각·상각 방법의 변경을 무조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같은 측정 모형(원가모형) 안에서 소비 형태에 대한 추정만 바뀌는 경우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반대로 평가모형 자체가 바뀌거나(원가모형→공정가치모형), 상각 대상 여부 자체가 바뀌는 경우(상각→비상각·손상평가)는 측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방법을 ~에서 ~으로 변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변경이 같은 측정 모형 안에서의 추정 변경인지, 측정 모형 자체의 전환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감가상각·상각 방법(정액법, 정률법 등)만 바뀌는 것은 추정치 변경, 원가모형·공정가치모형·재평가모형 같은 평가기준 자체가 바뀌거나 상각 여부가 바뀌는 것은 정책 변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감가상각 방법 변경(정액법↔정률법 등) = 회계추정치의 변경. 평가모형 변경(원가모형↔공정가치모형), 재고자산 원가흐름 가정 변경, 상각↔비상각·손상모형 전환 = 회계정책의 변경.

NoteBase

문 2. 20×3년 12월 31일 현재 (주)한국의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유동자산 금액은?

◯ 20×1년 10월 1일 3년 만기로 발행한 사채의 장부금액 ₩100,000이 남아 있다.
◯ 결산일 현재 만기가 8개월 남은 정기예금 ₩200,000이 있다.
◯ 당좌예금 ₩50,000이 있다.
◯ 만기가 3년 남은 정기적금 ₩500,000이 있다.
◯ ₩100,000에 취득한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기말 공정가치가 ₩150,000이다.

① ₩900,000
② ₩500,000
③ ₩400,000
④ ₩35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다섯 개 항목 중 어느 것이 유동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낸 뒤 그 금액만 합산하는 문제이다.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금융상품은 결산일 현재 잔여만기가 1년 이내인지 아닌지로 유동·비유동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사채 장부금액 ₩100,000: 20×1년 10월 1일 발행, 3년 만기이므로 20×4년 9월 30일 만기이며 부채 항목이다.
정기예금 ₩200,000: 결산일 현재 만기까지 8개월 남음.
당좌예금 ₩50,000.
정기적금 ₩500,000: 결산일 현재 만기까지 3년 남음.
단기매매금융자산: 취득원가 ₩100,000, 기말 공정가치 ₩150,000.

사용할 공식

유동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단기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기말 공정가치로 평가).
금융상품은 결산일 기준 잔여만기가 1년 이내이면 유동자산, 1년을 초과하면 비유동자산(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① 사채 ₩100,000은 부채 항목이므로 유동자산 집계에서 제외한다.
② 정기예금 ₩200,000은 결산일 현재 잔여만기가 8개월로 1년 이내이므로 유동자산(단기금융상품)에 포함한다.
③ 당좌예금 ₩50,000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유동자산에 포함한다.
④ 정기적금 ₩500,000은 결산일 현재 잔여만기가 3년으로 1년을 초과하므로 비유동자산(장기금융상품)이며 유동자산 집계에서 제외한다.
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유동자산에 해당하며, 평가금액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기말 공정가치인 ₩150,000이다.
유동자산 합계 = ₩200,000 + ₩50,000 + ₩150,000 = ₩400,000이다.

선지 판단

① ₩900,000: X → 사채(부채)와 정기적금(비유동자산)까지 모두 더한 금액이므로 과대계상이다.
② ₩500,000: X → 정기예금과 당좌예금만 더하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을 빠뜨렸거나 다른 항목이 섞인 금액으로 유동자산 범위를 잘못 잡은 값이다.
③ ₩400,000: O → 정기예금 ₩200,000, 당좌예금 ₩50,000,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기말 공정가치 ₩150,000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
④ ₩350,000: X → 단기매매금융자산을 취득원가 ₩100,000으로 잘못 반영하거나(₩200,000+₩50,000+₩100,000) 다른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 나오는 금액이다.

오답 포인트

사채 장부금액을 자산 항목으로 착각해 더하면 ①처럼 금액이 과대계상된다. 정기적금의 잔여만기가 3년임을 놓치고 유동자산에 포함시켜도 금액이 커진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을 기말 공정가치가 아니라 취득원가 ₩100,000으로 반영하면 ④와 같은 오답이 나온다. 정기예금의 만기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것도 흔한 실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부채 항목(사채)을 골라내 제외하고, 남은 자산 항목 각각에 대해 결산일 기준 잔여만기가 1년 이내인지를 따진다. 금융상품은 잔여만기로,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두 원칙만 적용하면 합산 금액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금융상품의 유동성 판단 기준은 발행일이나 가입일이 아니라 결산일 현재 남은 만기이다.
단기매매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항상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사채는 발행자 입장에서 부채이지 자산이 아니다.

NoteBase

문 3. 다음 거래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세부분류와 측정금액은?

(주)한국은 한국거래소에서 투자목적으로 (주)서울의 주식 1주를 ₩10,000에 구입하고 수수료 ₩1,000을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당해 주식을 단기간 내에 매각할 예정이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1,000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11,000
③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000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 보유목적에 따라 어떤 세부분류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수수료)를 최초 측정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단기간 내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이 경우 거래원가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조건 정리

(주)한국은 투자목적으로 (주)서울의 주식 1주를 ₩10,000에 매입하고 수수료 ₩1,000을 지급하였다. 해당 주식은 단기간 내에 매각할 예정이므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사용할 공식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최초 측정금액 = 취득 시 공정가치(매입가액),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최초 측정금액 = 취득 시 공정가치 + 거래원가(취득원가에 가산).

계산 과정

주식을 단기간 내에 매각할 예정이므로 이는 단기매매증권, 즉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원가(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 비용(수수료비용)으로 즉시 인식한다. 따라서 최초 측정금액은 매입가액인 ₩10,000이 되고, 수수료 ₩1,000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자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1,000 → X: 분류(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는 맞으나, 거래원가 ₩1,000을 취득원가에 가산한 금액이므로 측정금액이 틀렸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거래원가를 비용처리하므로 ₩10,000이 되어야 한다.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11,000 → X: 측정금액 산정 방식(거래원가 가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방식과 같으나, 단기간 내 매각 예정이므로 분류 자체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아니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다.
③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000 → O: 단기간 내 매각 목적이므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수수료는 비용처리하여 취득원가에서 제외하므로 측정금액은 ₩10,000이 된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 → X: 측정금액은 우연히 맞지만(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면 거래원가를 가산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1,000이 되어야 한다), 분류 자체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아니므로 틀렸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보유목적(단기간 내 매각 예정)을 놓치고 무조건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가산해 ₩11,000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둘째, 분류는 맞게 판단했더라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 거래원가를 비용처리한다는 점을 놓치고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원가를 가산하는 것이다. 분류와 측정금액 산정방식은 함께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서 취득한 금융자산의 보유목적(단기매매 여부, 지분율, 매도가능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 분류를 결정한 다음, 그 분류에 따라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가산할지(매도가능금융자산 등) 아니면 비용처리할지(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분류를 먼저 정하지 않고 거래원가부터 계산하면 오답으로 이어지기 쉽다.

암기 포인트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 목적, 거래원가는 당기비용 처리(원가에 미포함). 매도가능금융자산: 장기보유 목적,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 "단기매매=원가에서 수수료 뺀다"로 짝지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영업을 시작하였다. 20×1년 12월 31일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각 ₩350,000과 ₩200,000이었으며, 20×1년도의 총포괄이익은 ₩125,000이었다. 그리고 20×1년 중에 배당금 ₩5,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시점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① ₩5,000

② ₩30,000

③ ₩50,000

④ ₩15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말 순자산에서 기초 순자산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순자산의 증감은 당기순이익(또는 총포괄이익)과 자본거래(배당금 지급, 유상증자 등)로만 설명된다는 자본유지 개념을 이용해 기초 시점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20×1년 12월 31일 총자산 350,000원, 총부채 200,000원이므로 기말 순자산은 두 값의 차액이다. 20×1년도 총포괄이익은 125,000원이고, 20×1년 중 현금배당 5,000원을 지급하였다. 구하고자 하는 값은 20×1년 1월 1일(기초) 시점의 순자산 장부금액이다.

사용할 공식

기말 순자산 = 자산 − 부채이며, 기말 순자산 = 기초 순자산 + 총포괄이익 − 배당금(자본거래로 인한 유출) 관계가 성립한다. 이를 기초 순자산에 대해 정리하면 기초 순자산 = 기말 순자산 − 총포괄이익 + 배당금이다.

계산 과정

먼저 기말 순자산을 구하면 $350{,}000 - 200{,}000 = 150{,}000$원이다. 이 기말 순자산은 기초 순자산에 총포괄이익이 더해지고 배당금 지급만큼 차감되어 만들어진 값이므로, 기초 순자산을 x라 하면 $x + 125{,}000 - 5{,}000 = 150{,}000$이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x = 150{,}000 - 125{,}000 + 5{,}000 = 30{,}000$원이다. 따라서 20×1년 1월 1일 시점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3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5,000원(X): 배당금 지급액과 같은 값으로, 총포괄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배당금만 남긴 잘못된 계산이다.
② 30,000원(O): 기말 순자산 150,000원에서 총포괄이익 125,000원을 빼고 배당금 5,000원을 더한 값으로 올바른 기초 순자산이다.
③ 50,000원(X): 총포괄이익과 배당금을 함께 빼는 등 부호를 혼동했을 때 나오는 값으로 옳지 않다.
④ 150,000원(X): 기말 순자산 값을 그대로 기초 순자산으로 착각한 경우에 해당하며, 총포괄이익과 배당금의 영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배당금의 부호를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배당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자본거래이므로, 기초 순자산을 구할 때는 오히려 더해 주어야 한다(기말에서 거꾸로 갈 때 배당금만큼 순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총자산과 총부채를 빼서 기말 순자산을 구하는 첫 단계를 빠뜨리고 총자산이나 총포괄이익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과 부채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순자산(자본)을 계산해 둔다. 이후 기초와 기말 순자산의 관계식인 '기말 순자산 = 기초 순자산 + 총포괄이익 − 배당금'을 세운 뒤, 구하는 시점이 기초인지 기말인지에 맞추어 식을 이항해서 푼다.

암기 포인트

순자산 변동은 손익거래(총포괄이익)와 자본거래(배당금, 유상증자 등)로만 설명된다는 원칙을 기억해 둔다. 배당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므로 기말에서 기초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부호를 반대로, 즉 더해서 계산한다.

NoteBase

문 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표현충실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② 특정 정보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③ 추정치의 경우 추정 금액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추정 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도록 한다.

④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중 근본적 질적특성인 표현충실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없는 서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표현충실성과 또 다른 근본적 질적특성인 목적적합성(예측가치·확인가치)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현충실성은 서술하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없는 서술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출 때 완벽하게 달성된다. 완전한 서술은 이용자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으로, 특정 이용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정보를 조작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오류없는 서술은 현상의 기술이나 절차에 오류나 누락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정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치의 경우 그 금액이 추정치임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추정에 사용된 절차의 성격과 한계가 설명되며 절차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오류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측가치로서, 확인가치와 함께 목적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표현충실성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은 표현충실성의 구성요소인 완전한 서술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특정 정보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중립적 서술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추정치의 금액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추정 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한다는 설명은 오류없는 서술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낸 것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은 목적적합성의 구성요소인 예측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표현충실성은 서술의 완전성·중립성·무오류성에 관한 특성이지 정보가 미래 예측에 유용한지를 다루는 특성이 아니므로, 표현충실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③을 각각 표현충실성의 세 요소(완전한 서술·중립적 서술·오류없는 서술)와 정확히 짝지어 소거하면 남는 것은 ④뿐이다. ④가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 존재하는 질적특성이기 때문인데, 그것이 표현충실성이 아니라 목적적합성(예측가치)에 속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근본적 질적특성이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 두 가지라는 큰 틀을 먼저 세우고, 각 설명이 어느 특성에 속하는지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태에서 특정 질적특성(표현충실성 또는 목적적합성)이 언급되면, 먼저 그 특성의 하위 구성요소를 나열해 두고 각 선지를 하나씩 대응시킨다. 예측가치·확인가치라는 단어나 그와 같은 취지의 표현(미래 예측, 과거 확인)이 나오면 목적적합성 쪽 내용이므로, 표현충실성을 묻는 문제에서는 바로 오답 후보로 지목한다.

암기 포인트

근본적 질적특성 2가지: 목적적합성(예측가치, 확인가치), 표현충실성(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없는 서술). 예측·확인은 목적적합성, 완전·중립·무오류는 표현충실성으로 짝지어 암기해 둔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90,000이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40,000이다. 간접법에 따라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할 때, 다음 자료에 추가로 필요한 조정 사항은?

◯ 매출채권 ₩45,000 증가
◯ 매입채무 ₩10,000 증가
◯ 선급비용 ₩15,000 감소
◯ 선수수익 ₩12,000 감소
◯ 감가상각비 ₩18,000 발생

① 미수임대료수익 ₩36,000 감소
② 미지급급여 ₩36,000 감소
③ 미수임대료수익 ₩100,000 증가
④ 미지급급여 ₩100,000 증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조정 항목만으로는 목표 현금흐름에 도달하지 못할 때 추가로 필요한 조정 항목과 그 금액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자산의 증가·감소와 부채의 증가·감소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방향(가산/차감)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조건 정리

당기순이익 ₩90,000, 목표 영업활동 현금흐름 ₩40,000이다. 제시된 조정 항목은 매출채권 ₩45,000 증가, 매입채무 ₩10,000 증가, 선급비용 ₩15,000 감소, 선수수익 ₩12,000 감소, 감가상각비 ₩18,000 발생이다. 이 다섯 항목만 반영한 현금흐름과 목표 현금흐름의 차이만큼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사용할 공식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비현금비용(감가상각비 등) − 영업자산 증가 + 영업자산 감소 + 영업부채 증가 − 영업부채 감소. 여기서 매출채권·미수수익·선급비용 등은 자산 항목이고, 매입채무·미지급비용·선수수익 등은 부채 항목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제시된 다섯 항목만 반영하면: 매출채권 증가(자산 증가)는 −45,000, 매입채무 증가(부채 증가)는 +10,000, 선급비용 감소(자산 감소)는 +15,000, 선수수익 감소(부채 감소)는 −12,000, 감가상각비(비현금비용)는 +18,000이다. 합산하면 −45,000 + 10,000 + 15,000 − 12,000 + 18,000 = −14,000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계산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90,000 − 14,000 = 76,000이다. 목표 현금흐름 40,000과의 차이는 40,000 − 76,000 = −36,000이므로, 추가로 현금흐름을 36,000만큼 감소시키는 조정이 필요하다. 부채 항목이 감소하면 현금흐름에서 차감되므로, 부채인 미지급급여가 36,000 감소하는 조정이 정확히 이 차이를 만족시킨다.

선지 판단

① 미수임대료수익 ₩36,000 감소 → 미수임대료수익은 자산이므로 자산 감소는 현금흐름에 가산 효과(+36,000)를 낸다. 필요한 조정은 −36,000이므로 방향이 반대여서 틀린 선지이다.
② 미지급급여 ₩36,000 감소 → 미지급급여는 부채이므로 부채 감소는 현금흐름에서 차감(−36,000)된다. 계산 과정에서 도출한 필요 조정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은 선지이다.
③ 미수임대료수익 ₩100,000 증가 → 자산 증가는 차감 효과를 내어 방향은 맞을 수 있으나 금액이 100,000으로, 필요한 금액인 36,000과 맞지 않아 틀린 선지이다.
④ 미지급급여 ₩100,000 증가 → 부채 증가는 가산 효과를 내므로 방향이 반대이고 금액도 100,000으로 맞지 않아 틀린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자산의 증가·감소와 부채의 증가·감소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부호를 반대로 적용하면 ①, ④처럼 방향이 뒤바뀐 오답을 고르게 된다. 또한 금액만 맞추려다 계정 성격(자산인지 부채인지)을 놓치면 ③처럼 금액은 크지만 실제 필요한 조정과 무관한 선지를 고르는 실수를 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시된 조정 항목만으로 당기순이익을 목표 현금흐름까지 조정한 값을 계산한 뒤, 목표 현금흐름과의 차액을 구한다. 이 차액이 음수이면 추가로 현금흐름을 감소시키는 조정(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이 필요하고, 양수이면 증가시키는 조정(자산 감소 또는 부채 증가)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선지를 걸러낸다.

암기 포인트

간접법에서 자산 증가·부채 감소는 현금흐름 차감, 자산 감소·부채 증가는 현금흐름 가산으로 반영한다.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비용은 항상 가산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의 20×1년도 미수이자와 선수임대료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당기 중 현금으로 수령한 이자는 ₩7,000이고 임대료로 인식한 수익은 ₩10,000이다. (주)한국의 이자수익과 임대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잔액	기말잔액
미수이자	₩2,000	₩3,200
선수임대료	₩4,000	₩3,500

① 수익으로 인식된 이자수익은 ₩8,200이다.

② 현금으로 수령한 임대료는 ₩9,500이다.

③ 이자와 임대료로 인한 수익 증가액은 ₩17,700이다.

④ 이자와 임대료로 인한 현금 증가액은 ₩16,500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미수이자(자산)와 선수임대료(부채)의 기초·기말 잔액 변동을 이용해 발생주의 수익(이자수익·임대수익)과 현금흐름(현금 수령액)을 서로 환산하는 문제이다. 미수이자는 자산이므로 잔액이 증가하면 현금보다 수익이 더 많이 인식된 것이고, 선수임대료는 부채이므로 잔액이 감소하면 그만큼 수익으로 대체되어 현금 수령액이 수익 인식액보다 커진다.

조건 정리

미수이자: 기초 ₩2,000, 기말 ₩3,200. 선수임대료: 기초 ₩4,000, 기말 ₩3,500. 당기 현금으로 수령한 이자는 ₩7,000이다. 당기 임대료로 인식한 수익은 ₩10,000이다.

사용할 공식

미수이자(자산) 관련: 이자수익 = 현금수령액 + (기말 미수이자 - 기초 미수이자)
선수임대료(부채) 관련: 현금수령액 = 임대수익 + (기초 선수임대료 - 기말 선수임대료)

NoteBase

계산 과정

이자수익 계산: 미수이자가 기초 ₩2,000에서 기말 ₩3,200으로 ₩1,200 증가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이자 ₩7,000보다 ₩1,200 더 많은 금액이 수익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자수익 $= 7{,}000 + 1{,}200 = 8{,}200$원이다.
임대료 현금수령액 계산: 선수임대료가 기초 ₩4,000에서 기말 ₩3,500으로 ₩500 감소했다는 것은 기초에 미리 받아둔 선수임대료 중 ₩500이 당기 수익으로 대체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현금 수령액은 수익 인식액 ₩10,000보다 ₩500 적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 $= 10{,}000 - 500 = 9{,}500$원이다.
수익 증가액(이자수익 + 임대수익) $= 8{,}200 + 10{,}000 = 18{,}200$원이다.
현금 증가액(현금수령 이자 + 현금수령 임대료) $= 7{,}000 + 9{,}500 = 16{,}5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이자수익은 ₩8,200으로 계산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현금으로 수령한 임대료는 ₩9,500으로 계산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이자와 임대료로 인한 수익 증가액은 이자수익 ₩8,200과 임대수익 ₩10,000을 더한 ₩18,200이어야 하는데 ₩17,700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틀린 표현이다. 틀린 표현 ₩17,700 → 올바른 표현 ₩18,200.
④ 현금 증가액은 현금수령 이자 ₩7,000과 현금수령 임대료 ₩9,500을 더한 ₩16,500으로 계산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마지막에 이자수익과 임대수익을 단순히 더하는 검산 단계를 생략하고 선지의 숫자만 눈으로 훑으면 ③의 오류를 놓치기 쉽다. ₩8,200과 ₩10,000을 실제로 더해 ₩18,200이 나오는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하며, 자산 계정(미수이자)과 부채 계정(선수임대료)의 조정 방향이 반대라는 점(자산 증가는 수익 가산, 부채 감소는 현금 가산)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생주의 수익과 현금 수령액을 잔액 변동으로 환산하는 유형이 다시 나오면, 먼저 해당 계정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부터 구분한다. 자산(미수수익) 계정은 기말잔액이 기초보다 크면 그 증가분만큼 수익이 현금보다 많고, 부채(선수수익) 계정은 기말잔액이 기초보다 작으면 그 감소분만큼 현금이 수익보다 많다. 각 선지의 합산·차액 진술은 항상 개별 계산값을 실제로 더하고 빼서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미수수익(자산)은 수익 = 현금 + 기말증가분, 선수수익(부채)은 현금 = 수익 + 기초감소분으로 정리해 둔다.
자산은 증가가 수익을 밀어올리고, 부채는 감소가 현금을 밀어올린다는 방향성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장기투자 목적으로 (주)서울의 발행주식 중 25%를 취득하였고, 이 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 취득 시점에 (주)서울의 순자산장부금액에 대한 (주)한국의 지분금액은 취득 당시 매입가격과 일치하였다. (주)서울은 20×1년 당기순이익으로 ₩12,000을 보고하였고 동일 회계연도에 ₩6,000의 현금을 배당하였다. (주)한국의 20×1년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주)서울에 대한 투자주식 금액이 ₩50,000이라면,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주)서울 주식의 취득원가는? (단, 두 기업 간 내부거래는 없었다)

① ₩48,500

② ₩50,000

③ ₩51,500

④ ₩53,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기말 장부금액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거꾸로 이용해 취득원가를 역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득 시점에 순자산장부금액에 대한 지분금액과 매입가격이 일치하므로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건 정리

(주)한국의 지분율은 25%이고, 취득 시점의 순자산 지분금액과 매입가격이 일치하므로 영업권은 0이다. (주)서울의 20×1년 당기순이익은 12,000, 현금배당은 6,000이다. 20×1년 말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투자주식 금액은 50,000이다.

사용할 공식

지분법 적용 시 기말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기말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피투자회사 당기순이익 × 지분율) - (피투자회사 배당금 × 지분율) 영업권이 없으므로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 순자산 지분금액과 같고, 이후 피투자회사의 순이익 중 지분 상당액만큼 투자주식이 증가하며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투자주식이 감소한다.

계산 과정

지분법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지분율을 곱하여 구한다. $12,000 \times 0.25 = 3,000$. 배당수령액은 배당금에 지분율을 곱하여 구하며, 이는 투자주식에서 차감한다. $6,000 \times 0.25 = 1,500$. 기말 장부금액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50,000 = 취득원가 + 3,000 - 1,500 이를 정리하면 취득원가는 $50,000 - 3,000 + 1,500 = 48,500$이 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48,500 — 맞다. 취득원가에 지분법이익 3,000을 더하고 배당수령 1,500을 차감하면 기말 장부금액 50,000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50,000 — 틀리다. 이는 지분법이익과 배당수령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말 장부금액을 그대로 취득원가로 본 값이다. 지분법에서는 순이익 지분과 배당 수령분만큼 취득원가와 기말 장부금액이 달라지므로 옳지 않다.
③ ₩51,500 — 틀리다. 지분법이익 3,000만 반영하고 배당수령 1,500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48,500+3,000=51,500). 배당을 받으면 투자주식이 감소한다는 점을 빠뜨린 오류다.
④ ₩53,000 — 틀리다. 지분법이익과 배당수령의 부호를 반대로 적용하거나 이중으로 반영한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값으로, 배당수령을 차감이 아닌 가산으로 처리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지분법에서 피투자회사가 순이익을 보고하면 투자주식이 증가하고, 배당을 지급하면(현금을 받으므로) 투자주식이 감소한다는 방향을 혼동하기 쉽다. 특히 배당수령을 수익으로 인식해 투자주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계산하면 51,500이나 53,000과 같은 오답에 이르게 된다. 또한 영업권이 없다는 조건(취득 시 지분금액=매입가격)을 놓치고 별도의 조정액이 있다고 가정해서도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분법 문제는 항상 기말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순이익 지분 - 배당 지분 의 구조로 접근한다. 문제에서 기말 장부금액과 순이익·배당이 주어지고 취득원가를 묻는 경우에는 이 식을 취득원가에 대해 정리해 역산하면 된다. 영업권이 있는 경우에는 순이익 지분 계산 시 공정가치 차액 상각 등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처럼 취득 시 지분금액과 매입가격이 같다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런 조정 없이 단순 지분 계산만 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지분법 투자주식 기말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피투자회사 순이익 × 지분율) − (피투자회사 배당금 × 지분율). 순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는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20×1년 11월 1일에 제품을 해외판매하고 대금 $100을 20×2년 1월 31일에 받기로 하였다. 같은 날 (주)한국은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20×2년 1월 31일에 $100을 ₩1,130/$1의 환율로 매도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2년도 손익계산서에 보고해야 하는 통화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손실)은? (단, 이 통화선도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이며, 공정가치위험회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매출계약 및 통화선도계약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는 생략한다)

일자	현물환율(₩/$)	통화선도환율(₩/$)
20×1. 11. 1.	1,000	1,130(만기 3개월)
20×1. 12. 31.	900	1,010(만기 1개월)
20×2. 1. 31.	1,060	

① 이익 ₩3,000

② 이익 ₩5,000

③ 손실 ₩3,000

④ 손실 ₩5,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확정계약(firm commitment)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인 통화선도계약 자체를 회계연도마다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각 연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평가손익의 크기와 부호(이익/손실)를 구분해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문제는 계약체결일부터 만기까지 전체 누적손익이 아니라 20×2년도 한 해에 인식할 손익만을 묻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주)한국은 20×1. 11. 1.에 $100를 20×2. 1. 31.에 받기로 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100를 ₩1,130/$1의 환율로 매도하는 통화선도계약(만기 20×2. 1. 31., 계약체결시점 잔존만기 3개월)을 체결하였다. 20×1. 12. 31.(잔존만기 1개월) 시점의 통화선도환율은 ₩1,010/$1이고, 20×2. 1. 31.(만기일)의 현물환율은 ₩1,060/$1이다. 통화선도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효과적인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가정하며, 현재가치평가는 생략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통화선도계약(매도계약)의 평가일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통화선도 공정가치 = (계약상 선도환율 - 평가일의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선도환율) × 계약금액
매도계약이므로 평가시점의 선도환율이 계약상 선도환율(₩1,130)보다 낮을수록 이익이 커진다. 다만 만기일에는 잔존만기가 0이 되어 그 시점의 선도환율은 곧 현물환율과 같아진다. 특정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통화선도계약의 평가손익은 그 연도 기초(또는 계약체결일)와 기말(또는 결제일) 사이의 공정가치 증분(변동액)이다.

계산 과정

1) 20×1. 11. 1.(계약체결일): 계약상 선도환율과 그 시점의 선도환율이 같으므로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0이다.
2) 20×1. 12. 31.(잔존만기 1개월 평가일): 그 시점의 1개월 만기 선도환율은 ₩1,010이므로,
(1,130 - 1,010) × \$100 = ₩12,000 (이익)
이 12,000원은 20×1년도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부분이다.
3) 20×2. 1. 31.(만기 결제일): 잔존만기가 0이 되어 이 시점의 선도환율은 현물환율 ₩1,060과 같아진다.
$(1{,}130 - 1{,}060) \times \$100 = ₩7{,}000$
이는 계약체결일부터 만기일까지 누적된 통화선도계약의 총 공정가치이다.
4) 20×2년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통화선도계약의 손익은, 20×1년 말 공정가치(₩12,000)와 만기일 공정가치(₩7,000)의 차이, 즉 20×2년 한 해 동안의 변동액이다.
$7{,}000 - 12{,}000 = -5{,}000$
따라서 20×2년도에는 ₩5,000의 손실을 손익계산서에 보고해야 한다.

선지 판단

① 이익 ₩3,000 → 틀림. 20×1년도 누적 이익(₩12,000)이나 20×2년도 변동액(-₩5,000) 어느 쪽과도 일치하지 않는 값이다.
② 이익 ₩5,000 → 틀림. 금액 크기(5,000)는 맞지만 부호가 반대이다. 20×2년 중 선도환율(간접적으로는 계약이행 시 현물환율)이 계약체결시점의 잔존가치 대비 불리하게 움직여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다.
③ 손실 ₩3,000 → 틀림. 부호는 맞으나 금액이 다르다. 20×2년도 변동액은 12,000에서 7,000으로 줄어든 5,000이지 3,000이 아니다.
④ 손실 ₩5,000 → 옳다. 20×1년 말 공정가치 ₩12,000에서 만기일 공정가치 ₩7,000으로 ₩5,000만큼 감소하였으므로, 20×2년도 손익계산서에는 통화선도계약으로부터 ₩5,000의 손실이 보고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체결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전체 누적손익(₩7,000, 이익)을 20×2년도 손익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 12. 31.에 이미 ₩12,000의 이익이 20×1년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으므로, 20×2년도에는 그 이후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증분(7,000-12,000=-5,000)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매도계약이라는 점에서 선도환율(또는 현물환율)이 계약환율보다 낮아질수록 이익, 높아질수록(또는 이전 평가시점보다 상승할수록) 손실이라는 부호 관계를 거꾸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통화선도계약(매도계약)의 평가손익을 물으면, 먼저 각 평가시점의 통화선도 공정가치를 (계약환율-그 시점 잔존만기 선도환율)×계약금액 공식으로 각각 구하고, 만기일에는 잔존만기 선도환율 대신 현물환율을 대입한다. 그 다음 문제가 묻는 회계연도의 기초(또는 직전 평가시점) 공정가치와 기말(또는 결제시점) 공정가치의 차이만을 그 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암기 포인트

통화선도 공정가치=(계약선도환율-평가시점 잔존만기 선도환율)×계약금액; 만기일의 잔존만기 선도환율은 곧 현물환율과 같다; 매도계약은 환율(선도환율)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진다; 특정 회계연도의 손익은 전체 누적손익이 아니라 그 연도의 기초 대비 기말 변동액이다.

NoteBase

문 1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필수보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② 국세징수활동표

③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④ 순자산조정명세

정답 4번

쟁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필수보충정보의 항목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하는 정보이며, 규칙에 열거된 항목만 이에 해당한다. 열거되지 않은 항목을 골라야 한다.

용어 풀이

필수보충정보: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다.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첨부하는 명세서로, 필수보충정보와는 구분된다.

핵심 구분

필수보충정보(반드시 제공) = 유산자산의 종류·수량·관리상태 / 연금보고서·보험보고서·사회보험보고서 / 국세징수활동표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 그 밖에 재무제표 이해에 필요한 사항.
순자산조정명세는 위 열거 항목에 없어 필수보충정보가 아니며, 순자산의 변동은 재무제표인 순자산변동표에서 다룬다.

선지별 해설

①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 O. 규칙상 필수보충정보로 열거된 항목이다. 재정운영결과와 총잉여금 사이의 조정 내역을 보여 준다.
② 국세징수활동표 → O. 규칙상 필수보충정보로 명시된 항목으로, 국세의 부과·징수 활동 내역을 나타낸다.
③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 O. 재정운영표를 성질별로 다시 표시한 것으로 필수보충정보에 포함된다.
④ 순자산조정명세 → X. 필수보충정보 열거 항목에 없다. '순자산조정명세' → 필수보충정보가 아님(순자산변동은 재무제표인 순자산변동표에서 표시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명세'·'조정'이라는 이름이 붙어 그럴듯해 보이는 순자산조정명세를 필수보충정보로 오인하기 쉽다. 규칙에 열거된 필수보충정보 항목에는 순자산 관련 명세가 없고, 순자산의 변동은 필수보충정보가 아니라 재무제표인 순자산변동표에서 다룬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수보충정보 문제는 규칙에 열거된 6개 항목(유산자산, 연금·보험·사회보험보고서, 국세징수활동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떠올린 뒤, 선지 중 이 목록에 없는 것을 고른다. 재무제표 본문(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에서 다루는 항목이 선지에 섞여 있으면 그것이 정답 후보이다.

암기 포인트

필수보충정보 = 유산자산 / 연금·보험·사회보험보고서 / 국세징수활동표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 기타 필요사항. 순자산조정명세는 여기에 없고 순자산 변동은 순자산변동표(재무제표)에서 표시한다.

NoteBase

문 11. (주)한국의 20×1년도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0,000이고 단위당 공헌이익률은 20%, 순이익은 ₩3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총고정원가는?

① ₩250,000

② ₩150,000

③ ₩20,000

④ ₩6,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손익분기점(BEP) 매출액과 공헌이익률이 주어졌을 때 총고정원가를 역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손익분기점에서는 공헌이익 전액이 고정원가와 같아진다는 CVP분석의 기본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조건 정리

손익분기점 매출액 = 100,000원, 단위당 공헌이익률 = 20%, 순이익 = 30,000원이 주어져 있다. 구해야 할 값은 총고정원가이다.

사용할 공식

손익분기점에서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공헌이익이 고정원가와 정확히 일치한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S_{BEP}, 공헌이익률을 CMR, 총고정원가를 F라 하면 $F = S_{BEP} \times CMR$ 이 성립한다. 이는 손익분기점의 정의(매출액 × 공헌이익률 = 고정원가, 이익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바로 도출된다.

계산 과정

총고정원가 $F = 100{,}000 \times 0.2 = 20{,}000$ 따라서 (주)한국의 20×1년도 총고정원가는 20,000원이다.
참고로 순이익 30,000원은 총고정원가를 구하는 데 직접 쓰이지 않으며, 총매출액이나 추가 매출액을 구할 때 필요한 값으로 문제의 함정 역할을 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250,000원 → X. 이는 순이익 30,000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매출액이다. (고정원가 20,000원 + 목표이익 30,000원) ÷ 공헌이익률 20% = 250,000원으로 계산되는 값이며, 총고정원가가 아니라 총매출액이다.
② 150,000원 → X. 이는 순이익 30,000원을 얻기 위해 손익분기점 이후 추가로 필요한 매출액이다. 30,000 ÷ 20% = 150,000원으로, 목표이익 달성에 필요한 증분 매출액이지 고정원가가 아니다.
③ 20,000원 → O. 손익분기점 매출액 100,000원에 공헌이익률 20%를 곱한 값으로, 손익분기점에서 공헌이익과 고정원가가 같다는 관계를 그대로 적용한 총고정원가이다.
④ 6,000원 → X. 순이익 30,000원에 공헌이익률 20%를 곱한 값(30,000 × 0.2)으로, 아무런 회계적 의미가 없는 계산 결과이며 고정원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순이익 30,00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무심코 목표이익 분석 공식에 대입해버리는 데 있다. 총고정원가를 구할 때는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공헌이익률만 있으면 충분하며, 순이익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반대로 총매출액이나 추가 매출액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순이익 자료가 핵심적으로 쓰였을 것이므로, 문제가 정확히 무엇을 묻는지(총고정원가인지 총매출액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공헌이익률이 함께 제시되면, 곱셈 한 번으로 총고정원가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부터 떠올린다. 순이익, 목표이익 관련 숫자가 같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총매출액이나 안전한계 등 다른 값을 구할 때 쓰는 자료이므로, 묻는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한 뒤 필요한 자료만 골라 쓴다.

암기 포인트

손익분기점에서는 매출액 × 공헌이익률 = 총고정원가라는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총고정원가 + 목표이익) ÷ 공헌이익률로 별도로 계산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2.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토지를 ₩100,000에 구입하였고 이 토지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20×1년 12월 31일 이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공정가치는 ₩90,000이다. 이 재평가회계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무비율은?

① 부채대자본비율

② 매출액순이익률

③ 총자산회전율

④ 당좌비율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 적용 자산의 최초 평가감(공정가치 하락)이 어떤 계정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그 영향이 각 재무비율의 분자·분모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토지처럼 최초 재평가에서 최초로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그 감소분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재평가손실)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핵심 전제이다.

조건 정리

20×1년 1월 1일 토지 취득원가 100,000원, 재평가모형 적용. 20×1년 12월 31일 공정가치 90,000원으로 하락. 이전에 인식된 재평가잉여금이 없으므로 하락분 10,000원 전액은 당기비용(재평가손실)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을 10,000원 감소시킨다. 그 결과 총자산은 10,000원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익잉여금(자본)도 10,000원 감소한다. 반면 토지는 비유동자산이므로 당좌자산(현금성자산·매출채권 등)에는 영향이 없고, 부채 항목도 이 회계처리로 인해 변동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부채대자본비율 =부채자본,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 당좌비율 =당좌자산유동부채.

계산 과정

재평가손실 10,000원 인식으로 토지(총자산) 100,000원에서 90,000원으로 감소하고, 동시에 당기순이익이 10,000원 감소하여 자본(이익잉여금)도 감소한다. 부채대자본비율은 자본이 감소하므로 분모가 작아져 비율이 커진다.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므로 분자가 작아져 비율이 낮아진다. 총자산회전율은 총자산이 감소하므로 분모가 작아져 비율이 커진다. 당좌비율은 분자인 당좌자산(토지 제외)과 분모인 유동부채 어느 쪽도 이 재평가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비율에 변화가 없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부채대자본비율(X, 영향 받음) → 재평가손실로 자본(이익잉여금)이 10,000원 감소하여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본만 줄어드므로 비율이 상승한다.
② 매출액순이익률(X, 영향 받음) → 재평가손실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므로 비율이 낮아진다.
③ 총자산회전율(X, 영향 받음) → 토지 장부금액 하락으로 총자산이 감소하므로 매출액이 그대로여도 비율이 상승한다.
④ 당좌비율(O, 영향 받지 않음) → 당좌자산은 현금성자산·매출채권 등 유동성 높은 자산만 포함하고 토지(비유동자산)는 애초에 당좌자산에 들어가지 않으며, 재평가손실 인식이 유동부채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당좌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답 포인트

재평가모형에서 최초 평가감은 무조건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차감)으로만 처리한다고 착각하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고 오판하여 매출액순이익률까지 영향받지 않는다고 잘못 고를 수 있다. 이전에 인식된 재평가잉여금이 없다면 최초 하락분은 당기손익(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총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간과하고 총자산회전율이 영향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흔한 실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모형 문제에서는 먼저 이전에 인식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없다면 최초 하락분은 전액 당기손익(재평가손실)이고, 있다면 그 잔액 범위 내에서는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감소)으로, 초과분만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 이 처리가 총자산·당기순이익·자본 중 어디를 바꾸는지 표시하고, 각 비율의 분자·분모에 그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대조한다. 당좌자산·유동부채처럼 유동성 항목에 한정된 비율은 비유동자산(토지)의 평가손익과 무관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떠올린다.

암기 포인트

재평가모형: 최초 평가감=당기손익(재평가손실), 최초 평가증=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토지 평가손실 발생 시 영향받는 비율: 부채대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영향받지 않는 비율: 당좌비율(비유동자산·자본 변동은 당좌자산·유동부채와 무관).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20×1년 3월 7일 자기주식 500주를 매입하고 20×1년 7월 7일 이 중 100주를 소각하였다. 그리고 20×1년 8월 31일 자기주식 200주를 (주)서울에 매도하였다. (주)한국의 20×1년 자기주식거래가 (주)한국의 유통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은?

① 500주 감소

② 300주 감소

③ 200주 감소

④ 변화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재발행(매도)이라는 세 거래가 유통주식수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보유하는 순간부터 발행주식총수에는 남아 있지만 유통주식수에서는 빠지므로, 자기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발행주식총수 기준과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3월 7일에 자기주식 500주를 매입하였다. 7월 7일에 그 중 100주를 소각하였다(소각 대상은 이미 매입해 둔 자기주식 중 일부이다). 8월 31일에 자기주식 200주를 외부에 매도하였다. 이 세 거래가 20×1년 한 해 동안 유통주식수에 미치는 순영향을 구하는 것이 문제의 요구사항이다.

사용할 공식

유통주식수 =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수.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유통주식수는 취득 수량만큼 감소한다. 이미 유통주식수에서 제외되어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와 자기주식수가 동시에 같은 수량만큼 줄어들 뿐이므로 유통주식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자기주식을 처분(매도)하면 그 수량만큼 유통주식수가 다시 증가한다.

계산 과정

3월 7일 자기주식 500주 매입: 유통주식수 500주 감소.
7월 7일 자기주식 100주 소각: 소각되는 100주는 이미 3월 7일 매입 시점에 유통주식수에서 빠져 있던 자기주식이므로, 소각으로 인해 발행주식총수와 자기주식수가 함께 100주씩 줄어들 뿐 유통주식수에는 추가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변동 0).
8월 31일 자기주식 200주를 (주)서울에 매도: 자기주식이 외부로 처분되어 다시 유통되므로 유통주식수 200주 증가.
순효과 = −500 + 0 + 200 = −300주. 즉 유통주식수는 300주 감소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500주 감소 → X, 매입 시점의 500주 감소만 반영하고 이후 200주 매도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② 300주 감소 → O, 매입에 따른 500주 감소에서 매도에 따른 200주 증가를 차감한 순효과이다.
③ 200주 감소 → X, 매입에 따른 감소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매도 수량만 고려한 값이다.
④ 변화 없다 → X, 자기주식 거래로 유통주식수는 실제로 300주만큼 순감소하였으므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소각(7월 7일)을 별도의 유통주식수 감소 사건으로 다시 세어 결과를 −400주(500−100)로 잘못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각되는 100주는 이미 매입 시점에 유통주식수에서 빠져 있던 자기주식이므로 소각 자체는 유통주식수를 추가로 줄이지 않는다. 또한 발행주식총수와 유통주식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줄이는 거래이지 유통주식수를 줄이는 거래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주식 관련 거래가 여러 개 제시되면 각 거래를 취득(유통주식수 감소)·소각(유통주식수 불변, 발행주식총수만 감소)·처분/재발행(유통주식수 증가)의 세 유형으로 먼저 분류한 다음 부호를 더해 순효과를 구한다. 소각 대상 수량이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의 일부라는 점을 확인해 이중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암기 포인트

자기주식 취득은 유통주식수 감소, 자기주식 처분(매도)은 유통주식수 증가, 자기주식 소각은 유통주식수에 영향 없음(발행주식총수만 감소)으로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1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②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압수품 및 몰수품 중 화폐성자산은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④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정답 2번

쟁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비교환수익인 국세의 수익 인식 시점이 국세의 부과 방식(신고·납부 방식 vs 정부부과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용어 풀이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으로 국세, 부담금,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고·납부 방식 국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다.
정부부과 방식 국세: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하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국세의 수익 인식 시점은 부과 방식에 따라 나뉜다. 신고·납부 방식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정부부과 방식 국세는 정부가 부과(결정·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두 경우 모두 '납부하는 때'가 인식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 결정적 구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며, 여기서 유동성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의미한다. 재정상태표 작성 원칙 그대로이다.
② X — 정부부과 방식 국세는 정부가 부과(결정·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표현은 틀렸다. → '정부가 부과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가 옳은 표현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인식하는 것은 신고·납부 방식 국세이다.
③ O — 압수품 및 몰수품 중 화폐성자산은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규칙의 평가 규정과 일치한다.
④ O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재정상태표상 순자산 구분과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를 옳은 설명으로 오해하기 쉬운 이유는 '납부하는 때'라는 표현이 현금주의처럼 직관적으로 그럴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므로 국세 수익은 납부 시점이 아니라 부과(정부부과 방식) 또는 신고(신고·납부 방식) 시점에 인식한다. '누가·언제' 부분을 바꿔치기한 선지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세의 수익 인식을 묻는 선지가 나오면 먼저 부과 방식을 구분한다. 정부부과 방식이면 '정부가 부과하는 때', 신고·납부 방식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가 정답이고, '납부하는 때'라는 문구가 보이면 오답으로 걸러낸다.

암기 포인트

국세 수익 인식: 정부부과 방식=정부가 부과하는 때 / 신고·납부 방식=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공통으로 '납부하는 때'는 인식 시점이 아니다. 순자산 3구분=기본순자산·적립금 및 잉여금·순자산조정. 압수·몰수 화폐성자산=압류 또는 몰수 당시 시장가격.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영업을 시작하였다. 20×1년과 20×2년에 발생한 다음 거래들을 참고하여 20×2년 말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단, 일자는 월할 계산 하며, 금액 정보가 없는 자산항목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일자	내용
20×1. 3. 1.	제품 제작용 기기를 ₩10,000에 구입하면서 운반비 ₩500과 설치비 ₩1,500을 함께 지급하였다. 감가상각은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0으로 정액법을 사용한다.
20×2. 1. 7.	20×1년 말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100,000에 구입하고 구입한 토지 위의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20,000을 지급하였다. 철거에서 파생된 고철은 ₩5,000에 처분하였다.
20×2. 6. 1.	₩6,000 상당의 소모품을 구입하여 20×2년 12월 31일까지 3/4을 사용하였다.
20×2. 7. 1.	₩100,000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여 이 중 ₩10,000 상당의 상품은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하고 나머지 상품 중 90%는 20×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였다.
20×2. 10. 1.	₩20,00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① ₩128,100

② ₩133,100

③ ₩134,100

④ ₩153,1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여러 거래를 제시하고 20×2년 말 시점의 자산 잔액을 합산하는 문제이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성항목과 감가상각 월할 계산,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구건물 철거비, 폐물 처분수입 차감), 소모품과 상품 등 재고성 자산의 기말 잔액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무상증자처럼 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본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1) 20×1.3.1. 기계장치: 구입가 10,000+운반비 500+설치비 1,500=취득원가 12,000, 내용연수 5년·잔존가치 0·정액법, 20×2년 말까지 경과 22개월(월할 계산).
2) 20×2.1.7. 토지: 구입가 100,000+구건물 철거비 20,000-철거 시 발생한 고철 처분수입 5,000.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3) 20×2.6.1. 소모품: 총 6,000 구입, 20×2년 12월 31일까지 3/4 사용하였으므로 기말 미사용분은 1/4.
4) 20×2.7.1. 상품: 총매입 100,000에서 불량 반품 10,000을 차감한 90,000 중 90%를 20×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였으므로 기말 재고는 판매되지 않은 10%.
5) 20×2.10.1. 무상증자 20,000: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자본 항목 간 재분류일 뿐 회사의 자산 총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기말 장부금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토지 취득원가: 매입가액 + 사용 불가능한 구건물 철거비 − 철거 시 폐물 처분수입
기말 소모품(자산): 구입액 × 미사용 비율
기말 상품재고(자산): (매입액 − 반품액) × 미판매 비율

계산 과정

① 기계장치: 연간 감가상각비=$\frac{12{,}000-0}{5}=2{,}400$. 20×1.3.1.부터 20×2.12.31.까지는 22개월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2{,}400\times\frac{22}{12}=4{,}400$. 20×2년 말 장부금액=$12{,}000-4{,}400=7{,}600$.
② 토지: 취득원가=$100{,}000+20{,}000-5{,}000=115{,}000$. 토지는 비상각자산이므로 20×2년 말 자산가액도 115,000이다.
③ 소모품: 미사용분(1/4)=$6{,}000\times\frac{1}{4}=1{,}500$이 20×2년 말 자산으로 남는다.
④ 상품: 반품 후 상품=$100{,}000-10{,}000=90{,}000$, 이 중 90%가 판매되었으므로 미판매(기말재고)=$90{,}000\times(1-0.9)=90{,}000\times0.1=9{,}000$.
⑤ 무상증자 20,000은 자본계정 재분류에 불과하여 자산 총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20×2년 말 자산 합계=$7{,}600+115{,}000+1{,}500+9{,}000=133{,}1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128,100: X → 감가상각 경과월수를 22개월이 아닌 더 짧게(예: 10개월) 계산하거나 토지 부대비용 처리를 다르게 하여 축소 산정한 값으로 보이며, 위 계산 결과인 133,100과 맞지 않는다.
② ₩133,100: O → 기계장치 장부금액 7,600, 토지 115,000, 소모품 잔액 1,500, 상품재고 9,000을 모두 합산한 133,100과 일치한다.
③ ₩134,100: X → 133,100보다 1,000이 크므로, 예컨대 소모품 미사용분을 1/4이 아닌 다른 비율로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올바른 계산과 다르다.
④ ₩153,100: X → 무상증자 20,000을 자산 증가로 잘못 반영하면 133,100+20,000=153,100이 되는데, 무상증자는 자본 항목 간 재분류일 뿐 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틀린 값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오답 경로는 무상증자를 자산 증가로 착각하여 20,000을 더해버리는 것과, 감가상각 경과월수를 잘못 세는 것이다. 감가상각은 취득일인 20×1년 3월 1일부터 20×2년 12월 31일까지 정확히 22개월분만 인식해야 하며, 소모품과 상품은 '사용(판매)한 부분'이 아니라 '남아 있는 부분'이 기말 자산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여러 거래가 나열된 자산 합산 문제는 자산 항목별로 줄을 나누어 취득원가와 기말 잔액을 각각 계산한 뒤 마지막에 합산한다. 자본거래(증자, 배당 등)가 섞여 있으면 자산·부채에 영향을 주는 거래인지부터 먼저 구분하여 계산에서 제외할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형자산 취득원가=매입가+부대비용(운반비·설치비 등). 토지 취득원가=매입가+구건물 철거비-철거 시 폐물 처분수입(감가상각 없음). 소모품·상품 등 재고성 자산의 기말 자산=구입(매입)액×미사용(미판매) 비율. 무상증자·주식배당은 자본 항목 간 재분류일 뿐 자산 총액과 무관하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권당 액면금액 ₩1,000인 전환사채 1,000권(개)을 발행하였다. 전환사채의 만기는 3년이고 액면이자율은 연 8%로 매년 말 지급하며, 만기시점까지 사채액면 ₩2,000당 1주의 보통주(주당 액면가액 ₩1,000)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전환옵션이 없는 동일한 일반사채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은 10%이다. 자본요소(전환권)가 ₩0보다 클 때, (주)한국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자본요소(전환권)의 가치는? (단, A와 B는 각각 이자율 10%, 만기 3년의 단일금액 ₩1 및 연금 ₩1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① (₩1,000,000 × A + ₩80,000 × B) - ₩1,000,000

② (₩1,000,000 × B + ₩80,000 × A) - ₩1,000,000

③ ₩1,000,000 - (₩1,000,000 × A + ₩80,000 × B)

④ ₩1,000,000 - (₩1,000,000 × B + ₩80,000 × A)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전환사채를 액면(₩1,000,000)으로 발행했을 때, 총발행금액을 부채요소(일반사채로서의 현재가치)와 자본요소(전환권대가)로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묻는다. 전환사채는 발행금액에서 먼저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그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 총액은 권당 ₩$1,000 \times 1,000$권 = ₩1,000,000이고 이 금액으로 액면발행되었다. 액면이자율은 연 8%이므로 매년 말 지급되는 이자는 $1,000,000 \times 0.08 = 80,000$원이다. 만기는 3년이고, 전환권이 없는 동일 조건 일반사채에 적용될 시장이자율은 10%이다. A는 이자율 10%, 3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계수, B는 이자율 10%, 3년 연금 ₩1의 현재가치계수이다.

사용할 공식

부채요소(사채의 현재가치) = 만기 원금의 현재가치 + 매년 이자의 현재가치 = $1,000,000 \times A + 80,000 \times B$. 자본요소(전환권대가) = 총발행금액 − 부채요소 = $1,000,000 - (1,000,000 \times A + 80,000 \times B)$. 전환사채는 발행 시 총 수취대가를 먼저 부채요소(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원리금의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총발행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인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부채요소 = 원금의 현재가치 $1,000,000 \times A$ + 이자의 현재가치 $80,000 \times B$이며, 여기서 원금은 만기에 일시 지급되므로 단일금액현가계수 A를 곱하고, 이자는 매년 말 3년간 지급되므로 연금현가계수 B를 곱한다.
자본요소(전환권대가) = 총발행금액 ₩1,000,000 − 부채요소 =
$1,000,000 - (1,000,000 \times A + 80,000 \times B)$이다. 문제에서 자본요소가 ₩0보다 크다고 전제했으므로 이 값은 양수가 되어야 하며, 이는 액면발행금액이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부채요소보다 크다는(표시이자율 8%가 시장이자율 10%보다 낮으므로 부채요소가 액면보다 작다는) 것과 일치한다.

선지 판단

① (₩1,000,000×A + ₩80,000×B) − ₩1,000,000: X. 이는 부채요소에서 총발행금액을 뺀 것으로 자본요소가 아니라 그 부호가 반대인 값(음수)이다.
② (₩1,000,000×B + ₩80,000×A) − ₩1,000,000: X. 원금에 연금현가계수 B를, 이자에 단일금액현가계수 A를 곱해 원금·이자의 현가계수를 서로 뒤바꾸어 적용한 오류이며, 부호도 반대이다.
③ ₩1,000,000 − (₩1,000,000×A + ₩80,000×B): O. 총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원금×A + 이자×B)를 차감한 것으로, 자본요소(전환권대가)를 올바르게 나타낸다.
④ ₩1,000,000 − (₩1,000,000×B + ₩80,000×A): X. 부호는 맞지만 원금에 연금현가계수 B를, 이자에 단일금액현가계수 A를 곱해 현가계수를 서로 뒤바꾸어 적용한 오류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원금과 이자에 적용할 현재가치계수를 뒤바꾸는 것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계산하는 뺄셈의 순서(부호)를 반대로 하는 것 두 가지이다. 만기에 한 번 받는 원금에는 단일금액현가계수(A)를, 매년 반복 지급되는 이자에는 연금현가계수(B)를 곱해야 하며, 자본요소는 반드시 '총발행금액 − 부채요소'의 순서로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사채 문제를 보면 먼저 총발행금액(대개 액면금액)을 확인하고, 원금에는 단일금액현가계수, 매년 이자에는 연금현가계수를 곱해 부채요소를 구한다. 그다음 총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하면 자본요소(전환권대가)가 나온다는 순서를 지킨다.

암기 포인트

전환사채의 자본요소(전환권대가) = 총발행금액 − 부채요소(원금의 현재가치 + 이자의 현재가치). 원금은 단일금액현가계수, 이자는 연금현가계수를 곱한다는 점과, 부채요소를 먼저 구한 뒤 총발행금액에서 빼는 순서를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총계약금액 ₩60,000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주)한국이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미청구공사(유동자산) 금액은?

항 목	20×1년	20×2년	20×3년
발생 누적계약원가	₩ 8,000	₩ 35,000	₩ 50,000
총계약예정원가	40,000	50,000	50,000
계약대금청구	10,000	30,000	20,000
계약대금회수	7,000	28,000	25,000

① ₩2,000

② ₩3,000

③ ₩40,000

④ ₩42,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건설계약에서 진행기준(진행률법)을 적용할 때 누적계약수익(누적 인식 수익)과 누적 계약대금청구액을 비교하여 미청구공사(계약자산) 또는 초과청구공사(계약부채)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미청구공사는 아직 청구하지 못한 수익 상당액을 의미하는 유동자산 항목이다.

조건 정리

총계약금액은 60,000이다. 20×2년 말 누적발생원가는 35,000, 총계약예정원가는 50,000이다. 20×1년과 20×2년의 계약대금청구액 누계는 10,000 + 30,000 = 40,000이다. 계약대금회수액은 현금 수령액일 뿐 수익 인식과 무관하므로 이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진행률 =누적발생원가총계약예정원가, 누적계약수익 = 총계약금액 × 진행률, 미청구공사(계약자산) = 누적계약수익 − 누적계약대금청구액(만약 이 값이 음수이면 초과청구공사(계약부채)로 표시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20×2년 말 진행률은 $\frac{35,000}{50,000} = 0.7$이다. 누적계약수익은 $60,000 \times 0.7 = 42,000$이다.
누적계약대금청구액은 20×1년 10,000과 20×2년 30,000을 더한 40,000이다. 따라서 미청구공사는 $42,000 - 40,000 = 2,000$이다. 이 값이 양수이므로 유동자산인 미청구공사로 표시되고, 만약 음수였다면 초과청구공사(부채)로 표시되었을 것이다.

선지 판단

① ₩2,000 — 옳다. 누적계약수익 42,000에서 누적청구액 40,000을 차감한 값과 일치한다.
② ₩3,000 —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계약대금회수 누계(7,000+28,000=35,000)나 다른 금액을 잘못 대입한 결과로 보이며, 진행기준 계산식(누적수익-누적청구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40,000 —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이는 누적계약대금청구액 자체이며, 진행률에 따른 누적수익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므로 미청구공사가 아니다.
④ ₩42,000 —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이는 누적계약수익(진행률 적용 후 수익) 자체이며, 여기서 누적청구액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므로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미청구공사를 구할 때 누적계약수익만 계산하고 청구액 차감을 빠뜨리면 42,000(④)을 답으로 고르는 실수를 하게 된다. 반대로 진행률 적용 없이 청구액 누계만 답으로 고르면 40,000(③)을 고르는 실수를 하게 된다. 또한 계약대금회수액(현금 수령)은 수익 인식이나 미청구공사 계산과 무관한 자료이므로 청구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에서 발생 누적계약원가와 총계약예정원가를 먼저 찾아 진행률을 구하고, 총계약금액에 곱해 누적계약수익을 구한다. 그 다음 계약대금청구 항목만 누적으로 더해 누적청구액을 구한 뒤, 누적계약수익에서 누적청구액을 차감한다. 결과가 양수이면 미청구공사(자산), 음수이면 초과청구공사(부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미청구공사 = 누적계약수익(진행률×총계약금액) − 누적계약대금청구액. 계약대금회수(현금 수령액)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년 수정전 당기순이익은 ₩1,000,000이다. 다음의 20×1년도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에 계산되는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 매출채권 현금회수 ₩130,000
◯ 기말재고상품의 누락 40,000
◯ 비용으로 처리한 사무용품 미사용액 70,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70,000
◯ 외상매입금 현금지급 150,000
◯ 선수수익의 실현 30,000
◯ 이자수익 중 선수분 100,000

① ₩1,010,000
② ₩1,020,000
③ ₩1,040,000
④ ₩1,11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결산정리사항 각각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수정전 당기순이익에 가감하는 문제이다. 자산·부채 계정만 변동시키는 거래(현금 회수·지급)와 수익·비용에 영향을 주는 거래(재고 누락·선급비용·평가손익·수익실현·선수수익)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수정전 당기순이익 ₩1,000,000에서 출발한다. 7개 항목 중 손익(수익·비용)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골라 순이익에 가감하고, 단순 자산·부채 간 대체 항목은 순이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사용할 공식

수정후 당기순이익 = 수정전 당기순이익 + 순이익 증가 항목 – 순이익 감소 항목

NoteBase

계산 과정

① 매출채권 현금회수 ₩130,000: 매출채권(자산) 감소, 현금(자산) 증가만 발생하므로 손익에 영향 없음(0).
② 기말재고상품의 누락 ₩40,000: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매입 − 기말재고이므로 기말재고를 누락하면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어 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누락분을 반영하면 매출원가가 ₩40,000 감소하여 순이익이 ₩40,000 증가한다.
③ 비용으로 처리한 사무용품 미사용액 ₩70,000: 전액 비용(소모품비)으로 처리했으나 미사용분은 자산(소모품)으로 남아야 하므로 비용이 ₩70,000 과대계상되어 있었다. 자산으로 대체하면 비용이 ₩70,000 감소하여 순이익이 ₩70,000 증가한다.
④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70,000: 아직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이익이므로 이를 인식하면 순이익이 ₩70,000 증가한다.
⑤ 외상매입금 현금지급 ₩150,000: 외상매입금(부채) 감소, 현금(자산) 감소만 발생하므로 손익에 영향 없음(0).
⑥ 선수수익의 실현 ₩30,000: 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선수수익 중 실현된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수익이 ₩30,000 증가하여 순이익이 ₩30,000 증가한다.
⑦ 이자수익 중 선수분 ₩100,000: 이미 이자수익(수익)으로 인식된 금액 중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분이 있으므로 이를 선수수익(부채)으로 이연시켜야 한다. 수익을 ₩100,000 차감하므로 순이익이 ₩100,000 감소한다.
따라서 순이익 조정 합계 = +40,000 +70,000 +70,000 +30,000 −100,000 = +110,000이다.
수정후 당기순이익 = ₩1,000,000 + ₩110,000 = ₩1,110,000이다.

선지 판단

① ₩1,010,000: 조정 합계를 ₩10,000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호를 잘못 적용한 경우 나오는 값) → X.
② ₩1,020,000: 조정 합계를 ₩20,000으로 계산한 값으로, 손익 무관 항목을 잘못 포함하거나 선수분 처리를 다르게 한 경우 나올 수 있는 값이다 → X.
③ ₩1,040,000: 조정 합계를 ₩40,000으로 계산한 값으로, 일부 순이익 증가 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오는 값이다 → X.
④ ₩1,110,000: 손익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확히 골라 (+40,000)+(+70,000)+(+70,000)+(+30,000)+(−100,000)=+110,000을 반영한 값과 일치한다 → O.

오답 포인트

매출채권 현금회수와 외상매입금 현금지급은 둘 다 자산·부채 계정 사이의 대체 거래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를 순이익 증가나 감소 항목으로 잘못 넣으면 오답이 나온다. 또한 이자수익 중 선수분은 '수익'이라는 단어만 보고 가산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순이익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산정리 문항에서는 각 항목이 '자산·부채 간 대체'인지 '수익·비용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부터 구분한다. 현금 회수·지급처럼 대차 양쪽이 모두 자산·부채인 거래는 0으로 처리하고, 재고 누락·선급비용·미실현 평가손익·수익의 실현·선수분 이연처럼 수익이나 비용을 증감시키는 항목만 부호를 정해 수정전 순이익에 가감한다.

암기 포인트

기말재고 누락은 매출원가 과대→순이익 과소이므로 누락분만큼 순이익을 가산한다. 비용처리된 미사용 소모품은 자산으로 되돌리는 만큼 비용 감소→순이익 가산이다. 선수수익의 실현은 수익 가산, 반대로 이자수익 중 선수분은 수익에서 차감(선수수익 부채로 이연)한다는 점을 짝지어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이 다음 결산수정사항들을 반영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정전시산표 잔액>

자산	₩120,000	부채	₩80,000
수익	₩90,000	비용	₩70,000

<결산수정사항>

◯ 당기 중 건물을 임대하면서 현금 ₩6,000을 받고 모두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이 중 당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2,000이다.

◯ 당기 중 보험료 ₩5,000을 지급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 중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2,000이다.

◯ 차입금에 대한 당기 발생이자는 ₩1,000이다.

◯ 대여금에 대한 당기 발생이자는 ₩2,000이다.

① 수정후시산표상의 수익은 ₩92,000이다.

② 수정후시산표상의 비용은 ₩78,000이다.

③ 수정후시산표상의 당기순이익은 ₩14,000이다.

④ 수정후시산표상의 자산총액은 ₩121,000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발생주의 결산수정분개(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4가지를 각각 처리한 뒤 수정후시산표의 자산·부채·수익·비용·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수정사항이 자산·부채·수익·비용 중 어느 항목을 얼마만큼 증감시키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수정전시산표: 자산 ₩120,000, 부채 ₩80,000, 수익 ₩90,000, 비용 ₩70,000.
① 임대료 ₩6,000을 받아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으나 당기 귀속분은 ₩2,000이므로, 차기 귀속분 ₩4,000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선수수익이다.
② 보험료 ₩5,000을 지급해 전액 자산(선급비용)으로 처리했으나 다음 연도 귀속분이 ₩2,000이므로, 당기 귀속분 ₩3,000은 이미 소멸되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③ 차입금에 대한 당기 발생이자 ₩1,000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비용(부채)과 이자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④ 대여금에 대한 당기 발생이자 ₩2,000은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미수수익(자산)과 이자수익을 계상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선수수익 계상: 수익 감소, 부채(선수수익) 증가.
선급비용 소멸분 비용화: 자산(선급비용) 감소, 비용 증가.
미지급비용 계상: 비용 증가, 부채(미지급비용) 증가.
미수수익 계상: 자산(미수수익) 증가, 수익 증가.
당기순이익 = 수익 − 비용.

계산 과정

① 임대료 선수분: 수익 90,000 − 4,000 = 86,000, 부채 80,000 + 4,000 = 84,000.
② 보험료 당기 소멸분(비용화): 5,000 − 2,000 = 3,000을 비용으로 인식. 비용 70,000 + 3,000 = 73,000, 자산 120,000 − 3,000 = 117,000.
③ 차입금 발생이자 계상: 비용 73,000 + 1,000 = 74,000, 부채 84,000 + 1,000 = 85,000.
④ 대여금 발생이자 계상: 수익 86,000 + 2,000 = 88,000, 자산 117,000 + 2,000 = 119,000.
최종 수정후시산표: 자산 119,000, 부채 85,000, 수익 88,000, 비용 74,000.
당기순이익 = 88,000 − 74,000 = 14,000.

선지 판단

① X: 수정후 수익은 ₩88,000이다(₩92,000 아님). 임대료 미실현분 ₩4,000을 차감하고 대여금 이자수익 ₩2,000을 가산한 값이 88,000이다.
② X: 수정후 비용은 ₩74,000이다(₩78,000 아님). 보험료 당기 소멸분 ₩3,000과 차입금 이자비용 ₩1,000을 가산한 값이 74,000이다.
③ O: 수정후 당기순이익은 수익 88,000에서 비용 74,000을 차감한 ₩14,000이다.
④ X: 수정후 자산총액은 ₩119,000이다(₩121,000 아님). 보험료 선급분 소멸에 따른 자산 감소 3,000을 반영한 뒤 대여금 미수이자 2,000을 가산한 값이 119,00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임대료 항목에서 '당기에 해당하는 임대료 2,000'을 수익 증가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미 전액 수익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당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4,000을 오히려 수익에서 차감(선수수익 대체)해야 한다. 반대로 보험료 항목은 이미 전액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다음 연도 해당분 2,000'을 자산에 남기고 나머지 3,000을 비용으로 새로 인식해야 하며, 2,000을 비용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수수익·선급비용 유형은 항상 '이미 전액을 수익 또는 자산(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숫자가 당기 귀속분인지 차기(다음 연도) 귀속분인지를 구분해, 당기 귀속분이 아닌 부분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조정(수익 차감·부채 증가 또는 자산 차감·비용 증가)한다.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은 단순히 비용·자산 쪽에 해당 금액만큼 그대로 가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선수수익=전액 수익 처리 후 차기분만큼 수익 차감+부채 증가. 선급비용=전액 자산 처리 후 당기 소멸분만큼 자산 감소+비용 증가. 미지급비용=비용 증가+부채 증가. 미수수익=자산 증가+수익 증가. 당기순이익=수정후 수익−수정후 비용.

NoteBase

문 20. 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년 이내에 소멸되는 소모품은 유동자산이다.

② 자동차 회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운송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차량은 유형자산이고 감가상각을 한다.

③ 커피숍에서 판매를 위해 전시한 커피잔은 재고자산이다.

④ 자체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건물은 비유동자산이고 감가상각을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동일한 자산이라도 보유 목적과 사용 상태에 따라 유동자산·재고자산·유형자산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건설 중인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핵심 개념

유동자산=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거나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재고자산=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자산. 유형자산=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여 실제로 영업활동에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개시하며, 건설중인자산(건설 중인 건물 등)은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모품 중 1년 이내에 소멸(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문구 그대로 옳은 내용이다.
② O: 자동차 회사가 제조한 자동차라도 그것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차량운반구)으로 분류하고, 사용을 개시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판매 목적 재고(완성차)와 자가사용 목적 유형자산을 구분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옳은 내용이다.
③ O: 커피숍이 판매를 위해 진열·전시한 커피잔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옳은 내용이다.
④ X → 자체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건물은 비유동자산(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으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건설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을 개시한 이후부터 비로소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따라서 '비유동자산이고 감가상각을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③을 모두 맞는 설명이라고 판단하면서도 ④의 '비유동자산' 부분만 보고 이를 틀렸다고 오판하는 경우가 있다. 건설 중인 건물이 비유동자산이라는 분류 자체는 옳다. 틀린 부분은 분류가 아니라 '감가상각을 한다'는 부분이며, 아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 문제에서 같은 물건(자동차, 건물 등)이 등장하면 항상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는가'부터 확인한다.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자기 사용·임대 목적이면 유형자산이다. 그리고 유형자산이라도 아직 건설·제작이 완료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별도로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판매 목적=재고자산, 자가사용·임대 목적=유형자산. 감가상각은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개시 여부'의 문제 — 건설중인자산은 비유동자산이지만 감가상각은 사용 개시 후부터.

NoteBase